

영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유형과 발화 명료도의 관계 연구*

김 현 진
(나사렛대학교)

Kim, Hyun Jin (2004). Pronunciation error types and sentence intelligibility of Korean EFL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159-175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ypes of errors on English pronunciation and intelligibility of Korean EFL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nunciation accuracy and intelligibility. Thirty one students were evaluated by six English native speakers in terms of overall intelligibility and accuracy in five areas such as nuclear stress, word stress, syllable structure, consonants and vowel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nunciation errors were made by the subjects more frequently in word stress than any other area of pronunciation accuracy.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intelligibility was related with word stress, syllable structure, consonants and vowels, an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among the above five areas of pronunciation accuracy, word stress best accounted for the intelligibility of a given sentence. In the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pronunciation of in those five areas with a special focus on word stress was emphasized in terms of intelligibility.

[teaching pronunciation/intelligibility/nuclear stress/word stress/
syllable structure/segments, 발음 지도/명료도/해 강세/단어 강세/음
절 구조/분절음]

* 이 논문은 2004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들어가는 말

L2 교수 현장에 의사소통 접근법이 적용되면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가 최근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 (lingua franca)으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EIL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로서의 영어의 발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과거 청화식 교수법이 주도하던 때에는 영어 발음의 기준 내지는 규범이 영어 원어민 화자의 발음이며, 따라서 원어민 화자의 발음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conformity) 내지는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정확한가 (accuracy)라는 측면에서 발음 지도가 이루어졌다 정확성 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의사소통 접근법이 강세를 띄게 되면서 발음보다는 전체적인 발화 내용의 전달이 영어 교육의 중점 사항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발음 교육은 소홀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음은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영어 사용에서 발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영어가 더 이상 영어 원어민 화자만의 언어가 아니며 국제적인 소통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이 시점에서 영어 발음 및 발음 교육의 기준이 영어 원어민 화자와 동일한 액센트 (accent)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의도한 발화 내용을 청자에게 제대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발음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 즉 발음의 (원어민 화자와의) 일치 (conformity)보다는 발음의 명료도 (intelligibility)—의사소통의 최소 단위인 단어 및 문장 수준의 발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발음 교육에 대한 경향이다 (Anderson-Hsieh, Johnson, & Koehler, 1992, Dalton & Seidlhofer, 1994, Jenkins, 2000, Kang, 2004, McNerney & Mendelsohn, 1992, Wong, 1987)

발음의 정확성/일치와 발음의 명료함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발음의 명료도가 높고 발화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 언어의 음운론 중 명료도와 상관성이 있고 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발음 요소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음의 제 요소의 정확성과 명료도를 관련지어보는 일종의 파일럿 성격의 연구로서, 한국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발음 요소들을 5가지 측면 즉 대조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및 모음 등에서 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는가, 이 5가지 측면을 개별 변수로 하여 이들이 명료도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가? 이들이 명료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등을 조사함으로써, 명료한 발음을 산출하는데 발음의 어떤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더 강조되고 가르쳐져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명료도 및 영어 발음에 대한 연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발음 교육은 영어 원어민 액센트가 목표가 아니라 명료도가 목표라는 것에 전반적인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No, 2003) No (2003)에 따르면 명료도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Munro와 Derwing (1995)은 명료도를 화자의 메시지가 청자에게 실제로 이해되는 정도라고 정의하는 반면, Smith와 Nelson (1985)과 Nelson (1995)은 청자의 이해 정도를 명료도, 이해가능정도, 해석가능정도로 구분하여, 명료도를 단어 및 문장 수준의 발화 요소의 인지라고 정의하고, 이해가능정도와 해석가능정도를 각각 발화 의미 이해와 발화 뒤에 숨은 의도 내지는 목적으로 정의하여 명료도를 다소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 그런가 하면, Bamgbose (1998)는 명료도를, 발화 표현의 인지, 그 의미의 이해, 그 의미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 개념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No는 언표적 수준의 이해가 의사소통의 전제조건이며 초보 수준의 학습자의 경우에 언표내적 수준의 오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mith와 Nelson (1985)의 견해를 좇아 명료도를 단어 및 문장 수준의 발화의 이해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인 단어 및 문장 수준의 발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명료도로 정의하고 실험연구를 하였다

영어의 명료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어 발음의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억양,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분절음 등과 같은 음운론적 요소들이 해당된다 (Avery & Ehrlich, 1992, Celce-Murcia et al, 1996, Dalton & Seidlhofer, 1994, Jenkins, 2000, Kenworthy, 1989, Wong, 1987) 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초분절 음적 요소들 중에서 우선, 억양은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발음 요소인 반면 (Dalton & Seidlhofer, 1994), 국제적인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Jenkins, 2000) 한 구절이나 생각의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어에 주어지는 강세인 핵 강세는 화자와 청자 간에 말의 명료함을 전달하고 전달받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No (2003)에 따르면, 특히 한 구절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단어에 주어지는 무표적인 구 강세보다 주어진 구절에서 화자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에 주어지는 유표적인 대조 강세는 명료도에 더욱 중요하다 영어의 경우 단어 강세는, 영어 화자들이 말의 흐름에서 단어가 나오는 대로 일일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세 음절을 귀담아 듣는 등 말의 이해에 핵심이 되는 가이드로 강세를 이용한다 (Action, 2001, Kenworthy, 1987)는 점에서 명료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영어의 음절 구조와 다른 음절 구조를 갖는 영어 학습자가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자음을 삭제하거나 모음을 삽입하여 원

래의 음절 구조를 바꾸면 말의 명료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음절 구조도 명료도에 중요한 요인이다 (Anderson-Hsich et al., 1992, Jenkins, 2000). 이러한 초분절 음적 요소들 이외에도 자음과 모음 등의 분절음도 당연히 명료도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분절음 오류가 초분절음 오류나 문법 오류, 잘못된 어휘 선택 등 다른 오류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의 명료함을 불분명하게 하는데 치명적이다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 화자의 경우, 한국어 음운론에서 억양 및 강세와 같은 초분절음적 요소가 의미의 차이를 초래하지 않으며, 음절 구조가 영어와 다르고, 영어에 있는 분절음에 해당하는 음소가 한국어에 없거나 있어도 음가가 달라 영어 발음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 음운론에서는 초성 자음 하나와 종성 자음 하나 만을 허용하는 음절 구조를 가지므로, 초성 자음을 최대 세 개 까지 그리고 종성 자음을 최대 네 개 까지 허용하는 음절 구조를 갖는 영어 음운론을 학습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 화자들은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한국어 음절 구조를 영어 음절에 전이하여 자음군의 자음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거나 종성 자음 뒤에 모음을 삽입하여 발음하는 음절 구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억양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비 원어민 화자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이해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영어의 단어 강세는 영어의 명료도를 논의하는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영어의 강세는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 크기, 높낮이, 길이로 실현된다 즉 강세 음절은 비강세 음절보다 더 크기가 크고, 높낮이가 더 높고, 모음의 길이가 더 길다 그러나 No는 이 세 가지 요소들 중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 하지만 (예를 들어 Fry (1958)는 높낮이, Avery와 Ehrlich (1992)는 길이, Celce-Murcia 등 (1996)은 높낮이와 길이가 강세를 지각하는데 가장 결정적이라고 한다), 크기보다는 길이 및 높낮이가 더 결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의사소통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 화자들의 경우에는, 영어 화자가 말을 이해할 때, 영어 원어민이 갖는 강세의 정확성보다는 명료도의 측면에서 강세 음절이라는 것이 명료하다면 강세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 화자들이 모국어 액센트를 버리고 원어민의 발음과 동일하게 발음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명료도를 영어 발음의 목표로 정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영어의 억양, 강세, 음절 구조, 분절음 등 영어 음운론이 가지는 발음의 모든 측면에서 명료한 발음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학습자들의 발음에 대한 인식은 분절음에 대한 관심 이상을 넘지 않는 것 같으며, 발음 연습을 할 때에도 다른 측면보다는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에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 따라서 한국 화자들이 영어 화자들과 동일하게 강세를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단어 강세는 “명료”하게 실현되어 말의 명료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영어 음절

구조를 근거로 발음을 하는데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II. 연구 문제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어의 분절음의 발음외에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 강세(대조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등의 발음에서 한국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비율을 조사하고, 이러한 유형의 오류들이 명료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대학생들의 발음 오류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대학생들의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구조, 분절음의 발음은 명료도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IV. 실험 연구

1 피험자, 재료 및 절차

영어 발음의 명료도와 발음의 오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발음을 제 측면—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및 모음—으로 구분한 뒤 다음과 같이 18개의 문장을 선별하고 이를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31명에게 소리 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로 TOEIC 성적이 400~450점 정도의 중하위권 학생들로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25명이다. 실험에 참가하기 전 학생들과 사전 인터뷰를 가진 결과, 이들은 영어 발음을 학습할 때 개별 분절음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영어 음절 구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개별 단어를 학습할 때 단어의 철자, 의미, 분절음의 발음 등은 학습하지만 강세를 두어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등의 단어 강세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장 1~2는 핵 강세, 문장 3~5는 단어 강세, 문장 6~10은 음절 구조, 그리고 문장 11~14는 한국 학생들에게 어려운 자음(/θ/, /s/, /l/, /r/) , 문장 15~18도 역시 한국 학생들이 지각 및 산출에 어려움을 갖는 모음(/i/, /ɪ/, /e/, /æ/)에 대하여 정확도를 평가하도록 의도되었다. 문장들 중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이 해당 문장에서 의도된 발음 요소이다. 문장 3, 4, 5, 11, 12는 No (2003)에서 사용된 문장들이며 나머

지는 이 실험을 위하여 새로 사용한 문장들이다

- 1 Tom likes the **green** hat, and Mary likes the **red** hat.
- 2 Tom likes the blue **shirt**, and Mary likes the blue **skirt**.
- 3 I have a **computer**
- 4 A **balloon** is on the truck
- 5 A **banana** is on the desk
- 6 A **pig** is in the tree
- 7 There are clouds in the **sky**
- 8 The **desk** is broken
- 9 Billy **bit** the brown pig
- 10 The clothes are **dry**
- 11 He **learns** fast
- 12 She runs fast
- 13 The book is **thick**
- 14 The cook is sick
- 15 I will **leave** at six
- 16 I **live** in Cheonan
- 17 I need a **pen**
- 18 We need a **pan**

학생들에게 하나씩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다 모든 문장은 문장의 의미를 생각한 다음 의미를 전달하는 의도를 가지고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다 특히 핵 강세를 평가하기 위한 문장 1~2는 문장의 의미를 우리말로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에 문장의 대조되는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읽는 동안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음성 녹음 편집 프로그램 Cool Edit Pro를 이용하여 mp3 파일로 녹음하였다

원어민 화자 6명이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하는데 참여하였다 이들이 실험에서 목표하는 내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1회 회의를 가졌으며 명료도의 개념과 발음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명료도와 발음 요소들을 평가하는 연습을 하였다 평가 세션은 둘로 나누어 이들에게 소리 파일을 2회 들려주었고 각 세션에서 발음 명료도와 4가지 측면에서의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1차 듣기에서는 우선 모든 문장에 대해 명료도를 부록 1과 같이 6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가장 명료하다는 6점, 전혀 명료하지 않다는 1점으로 표시하

게 하였다 2차 듣기에서는 부록 2와 같이 각 문장에서 의도하는 발음의 제 측면을 식별하여 표시하게 하였다 즉 학생들의 발음 산출에서 문장 1~2에서는 핵 강세, 그리고 문장 3~5에서는 단어 강세를 정확한 위치에 두는지를 평가하고, 문장 6~10에서는 목표한 단어에서 영어 음절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문장 11~18은 목표한 단어에서 각각 음절 초 및 음절 말 자음 그리고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녹음 및 듣고 평가하기에 소요되는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였다 학생 당 녹음 시간은 약 4~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모두 3일에 걸쳐 녹음되었다 녹음을 마친 뒤 6명의 원어민이 한 자리에 모여 두 차례에 걸쳐 녹음을 들으며 평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명료도 평가가 약 2시간, 발음 요소 평가가 약 3시간 이상 그리고 사후 다시 듣고 평가하는 회의에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모두 3일이 꼬박 걸렸다

원어민들에게 녹음을 들려주고 각각 명료도와 발음 영역의 정확도를 평가하게 한 다음 6명의 평가자와 본 연구자가 함께 1차례의 평가 회의를 갖고서, 발음 영역의 정확성을 식별하는 평가 부분에 대하여 평가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녹음을 다시 들려주고 의견을 조율한 뒤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내놓게 하였다 예를 들어 녹음된 모음 /e/의 식별에서 학생 13번의 경우 5명의 평가자가 /e/라고 평가하고 1명의 평가자가 /æ/라고 평가한 경우 다시 한번 녹음을 들려주고 재평가하게 하였고 재평가의 결과도 다른 경우 각자의 의견을 교환한 뒤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평가자간 신뢰도는 80으로 평가자들 간의 평정이 상호간에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결과 및 논의

이상의 절차를 거쳐 실험한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대학생들의 발음 오류의 유형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발음의 정확성을 각 음운론적 측면에서 평가한 전반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음의 명료도를 6점 척도로 6명의 원어민이 평정한 결과와 발음의 정확성을 5 영역에서 평가한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1과 같다 각 영역의 문항수가 다르므로 각 영역을 10점을 최고 점수로 환산하여 각 발음 영역의 점수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발음의 명료도 및 정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핵 강세	31	1 00	4 00	3 04	0 66
단어 강세	31	2 05	3 34	2 81	0 30
음절 구조	31	2 07	3 46	2 77	0 34
자음	31	1 78	3 28	2 81	0 31
모음	31	1 72	3 30	2 86	0 35
명료도	31	3 81	5 34	4 70	0 33

표 2
발음의 정확도 점수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
점수	7 60	5 20	5 30	6 05	6 05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발음 요소별로 볼 때 단어 강세 오류 유형이 가장 점수가 낮고 그 다음으로 음절 구조 유형이었다. 이 결과는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 화자들에게 단어 강세 오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음절 구조 오류 비율이 높으며, 자음과 모음의 동일한 비율의 오류를 보였으며, 대조 강세인 핵 강세는 오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사전 인터뷰에서 보고하듯이 영어 발음을 학습할 때 개별 분절음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연습하는 편이지만 영어 음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별 단어를 학습할 때 단어의 철자, 의미, 분절음의 발음은 학습하지만 강세를 두어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등의 단어 강세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핵 강세는 대조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에 별도의 강세를 두는 것이므로 개별 단어의 강세 음절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으므로 비교적 수월하게 발화에 실현해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실험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이 1음절 단어이므로 대조 핵 강세를 구현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연구 문제 2. 한국 대학생들의 발음의 제 요소 즉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분절음과 명료도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명료도와 발음 요소별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명료도와 상관성이 있는 발음 영역은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이요 이 중 단어 강세가 가장 상관성이 높으며, 핵 강세는 명료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화 내용을 대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단어 강세가 의미 전달에 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명료도와 발음 요소별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
단어 강세	447*				
음절 구조	393*	935**			
자음	807**	828**	807**		
모음	846**	841**	813**	982**	
명료도	324	.595**	460**	487**	505**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발음의 영역 중 어떤 영역이 발음의 명료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명료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다음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명료도를 예측하는 발음 요소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595 ^{a)}	354	331	2706

a) 예측값 (상수), 단어강세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1 162	1	1 162	15 861	.000 ^{b)}
	잔차	2.124	29	7 324E-02		
	합계	3 286	30			

a) 예측값 (상수), 단어강세

b) 종속변수 명료도

표 4의 회귀분석에 따르면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 중 단어 강세가 명료도를 35.4%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음 영역 중에서 단어 강세를 정확하게 두어 발음하는 것이 전체 발음이 얼마나 명료한가를 35.4%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적어도 이 피험자 집단과 이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와 분절음에 대해서는, 발음의 영역 중에서 단어 강세가 발화를 가장 명료하게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발화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명료도에 단어 강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 (Action, 2001, Kenworthy, 1987)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하여 발음의 명료도와 발음의 정확도의 관계를 조사하여 보았다. 적어도 이 실험에 참가한 집단의 학습자들과 실험에 사용된 단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요약할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발음 오류 유형은 핵 강세,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 영역 중에서 단어 강세 오류 유형이 가장 오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음절 구조와 분절음 오류 유형이 많으며, 핵 강세 오류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강세와 같은 초분절음이 없는 한국어 화자들에게 핵 강세는 쉽게 습득된 반면 단어 강세는 가장 어렵게 습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핵 강세의 경우 전체 발화 중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단어에 강세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하여 단어 강세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 고유의 속성으로서 학습자가 개별 단어마다 다른 음절에 강세를 두는 것을 일일이 학습하고 기억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관분석에서 보듯이 명료도는 단어 강세, 음절 구조, 자음과 모음이 모두 명료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이 단어 강세였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단어 강세가 명료도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이를 종합하면 발화 내용을 상대방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는가를 나타내는 명료도에 중요한 발음 요소가 단어 강세 이므로 한국 학습자들의 발음 지도에서 단어 강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단어 강세보다 오류 비율은 적지만, 여전히 오류 비율이 높은 유형은 음절 구조이다. 이는 한국어 음절 구조와 영어의 음절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실험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명료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명료도와 상관있는 요인이며 따라서 영어 음절 구조와 한국어 음절 구조의 상이함에 대한 학

습자의 주의와 의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발음 지도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영어 교육에서도 발음 교육은 말의 명료도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화자의 말을 청자가 명료하게 전달 받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료도와 상관있는 발음의 제 요소들이 모두 충분히 학습자들에게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중요성만큼 지도되고 연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험 결과에서처럼 학습자들이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분절음뿐만 아니라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단어 강세와 음절 구조가 명료도 측면에서 충분히 가르쳐져야 한다.

발음 교육에 대한 강조가 시대마다 주류를 이루는 교수방법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발음에 대한 관심과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크다. 통념적인 상식 수준에서 외국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는 그 외국어를 얼마나 잘 말하는가로 가장 잘 평가되며 얼마나 잘 말하는가는 얼마나 발음이 좋은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에 대해 가지는 평가는 자신의 전반적인 외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로 곧잘 동일시되기도 하며 그 외국어를 학습하는 태도 및 정의적인 측면에 크게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발음 교육은 중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때 어떻게 지도하는가가 문제이며 명료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발음을 하거나 무조건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은 상호 대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식과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관객 의식”을 가지고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명료하게 전달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업 안과 밖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발음도 의사소통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상호작용적으로 가르쳐질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연습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첫째, 피험자 수 문제이다. 이 실험에는 모두 31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학생들을 대표한다고 하기에 매우 적은 수이다. 둘째, 발음 요소의 대표성 문제이다. 각 요소별로 3~5개의 문장 및 단어들이 선별되었는데 과연 이들이 각 요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단어 강세의 경우 단어의 친숙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우연’이라는 변수가 통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음의 제 요소의 정확성과 명료도를 관련지어본 과잉로트 성격의 연구로서 차후에 이를 주제로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발견 결과가 얻어지는 연

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Acton, W (2001) FocalSpeak Integrating rhythm and stress in speech-pronunciation In J Murphy & P Byrd (Eds), *Understanding the courses we teach Local perspectives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197-217)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Anderson-Hsieh, J, Johnson, R, & Koehler, K.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speaker judgments of nonnative pronunciation and deviance in segmentals, prosody, and syllable structure *Language Learning*, 30, 433-477
- Avery, P, & Ehrlich, 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ngbose, A (1998) Torn between the norms Innovations in world Englishes *World Englishes*, 17(1), 1-14
- Celce-Murcia, M, Brinton, D, & Goodwin, J (1996) *Teaching pronunciation A reference for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ystal, 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ton, C, & Seidlhofer, B (1994)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rwing, T, & Munro, M (1997) Accent, intelligibility, and comprehensibility Evidence from four L1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 1-16
- Flowerdew, J (1994) Research of relevance to second language lecture comprehension: An overview In J Flowerdew (Ed), *Academic listening* (pp 7-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y, D (1958) Experiments in the perception of stress *Language and Speech*, 1, 126-152
- Gass, S, & Varonis, E (1984) The effect of familiarity on nonnative speech *Language Learning*, 34, 65-89

- Gilbert, J (1993) *Clear speech Pronunciat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n America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win, J (2001) Teaching pronuncia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117-138) Boston, MA: Heinle & Heinle
- Grosjean, F, & Gee, J (1987). Prosodic structure and spoken word recognition In U. Franuenfelder & L Tyler (Eds), *Spoken word recognition* (pp 135-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Gupta, A (2001) Realism and imagination in the teaching of English *World Englishes*, 20(3), 365-381.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R (2002). Beyond 'Listen and repeat'. Pronunciation teaching materials and theor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 Richards & W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g, A. (2004) Pronunciation Conformity or intelligibility?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1-31
- Kenworthy, J. (1987)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Longman
- Ladfoged, P, & Maddieson, I (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Oxford: Blackwell
- Major, R, Fitzmaurice, S, Bunta, F, & Balasubramanian, C (2002) The effects of nonnative accents of listening comprehension Implications for ESL assessment. *TESOL Quarterly*, 36(2), 173-190
- McNerney, M., & Mendelsohn, D (1992) Suprasegmentals In the pronunciation class: Setting priorities In P Avery & S Ehrlich (Ed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pp 185-1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ley, J (1991). The pronunciation component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 *TESOL Quarterly*, 25, 481-520
- Munro, M, & Derwing, T (1995).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5, 73-97.
- Naiman, N (1992) A communicative approach to pronunciation teaching In P.

- Avery & S Ehrlich (Ed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pp 163-1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lson, C. (1996) Intelligibility and world Englishes in the classroom *World Englishes, 14*(2), 273-279
- Nespor, M, & Vogel, I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No, G (2003) Intelligibility and English pronunciation in elementary schools *English Teaching, 58*(1), 201-218
- No, G (1997) Developmental and transfer factors in English pronunciation of Korean elementary school and college students *English Teaching, 52*(1), 21-39
- Pennington, M (1996) *Phonology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Riney, T, Takada, M, & Ota, M (2000) Segmentals and global foreign accent The Japanese flap in EFL. *TESOL Quarterly, 34*(4), 711-737
- Shim, R (1994) Englishized Korean Structure, status, and attitudes *World Englishes, 13*(2), 225-244
- Smith, L. (1992) Spread of English and issues of intelligibility In B Kachru(Ed), *The other tongue: English across cultures* (pp 75-90)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mith, I, & Bisazza, J (1982) The comprehensibility of three varieties of English for college students in seven countries *Language Learning, 32*, 129-269
- Smith, L, & Nelson, C (1985) International intelligibility of English Directions and resources *World Englishes, 4*(3), 333-342
- Taylor, D. (1993) Intonation and accent in English What teachers need to know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1*(1), 1-21
- Warschauer, M (2000) The changing glob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nglish teaching. *TESOL Quarterly, 34*(3), 511-535
- Widdowson, H G (1997) EIL, ESL, EFL: Global issues and local interests *World Englishes, 16*(1), 135-146
- Wong, R (1987) Teaching pronunciation. *Focus on English rhythm and inton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 Yano, Y (2001) World Englishes in 2000 and beyond *World Englishes, 20*(2),

119-131

Yoo, H (1995) The processing of vowel length in English by Korean and Japanese learners *English Teaching*, 50(1), 221-243

부 록 1

문장 명료도 채점표

No	Name	S1	S2	S3	S4	S5
01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02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03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04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05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0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부 록 2

발음 영역별 정확도 채점표

No	Name	S1	S2
01		green red shirt skirt	
02		green red shirt skirt	
03		greon red shirt skirt	
04		green red shirt skirt	
05		greon red shirt skirt	

No	Name	S3			S4		S5		
01		com	pu	ter	ba	loon	ba	na	na
02		com	pu	ter	ba	loon	ba	na	na
03		com	pu	ter	ba	loon	ba	na	na
04		com	pu	ter	ba	loon	ba	na	na
05		com	pu	ter	ba	loon	ba	na	na

No	Name	S6		S7		S8		S9		S10	
01		pig	pi-g	sky	s-ky	desk	de-s-k	bit	bi-t	dry	d-ry
02		pig	pi-g	sky	s-ky	desk	de-s-k	bit	bi-t	dry	d-ry
03		pig	pi-g	sky	s-ky	desk	de-s-k	bit	bi-t	dry	d-ry
04		pig	pi-g	sky	s-ky	desk	de-s-k	bit	bi-t	dry	d-ry
05		pig	pi-g	sky	s-ky	desk	de-s-k	bit	bi-t	dry	d-ry

No	Name	S11		S12		S13			S14				
01		l	r	?	l	r	?	th	t	s	?	s	?
02		l	r	?	l	r	?	th	t	s	?	s	?
03		l	r	?	l	r	?	th	t	s	?	s	?
04		l	r	?	l	r	?	th	t	s	?	s	?
05		l	r	?	l	r	?	th	t	s	?	s	?

No	Name	S15		S16		S17		S18	
01		leave	live	leave	live	pen	pan	pen	pan
02		leave	live	leave	live	pen	pan	pen	pan
03		leave	live	leave	live	pen	pan	pen	pan
04		leave	live	leave	live	pen	pan	pen	pan
05		leave	live	leave	live	pen	pan	pen	pa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College

김현진

나사렛대학교 영어교육과

361-742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456

Tel 041-570-7968

Email hjkim@kornu.ac.kr

Revised in Oct, 2004

Reviewed by Nov, 200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4